

# 이렇게 들었다

## 인권 침해와 차별

### “온갖 존재 실제없고 평등”

■ 온갖 존재는 실제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인권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성경>  
 ■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 온갖 중생도 다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온갖 사물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성자들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미륵에 이르러도 진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마경>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기구로 11월 26일 출범하자, 첫날부터 인권 침해 및 차별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빚뿜졌다. 국립대의 교수가 장애인 제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없다고 외면한 지방 자치 단체를 고발하는가 하면, 불법 체류 외국인 학대를 조사해 달라는 등 122건의 진정이 이어졌다. 업무시작 3일째인 28일까지 그동안 사치지 못한 윤문을 안고 달려온 인권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인권 회복'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목적을 새롭게 떠올리게 한다. 또 우리 사회는 힘없는 사람의 인권이 마구 짓밟히고 있는 어두운 구석이 많다는 것과 동시에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와 동성애자의 출대 등 인권 사각지대가 많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부처님께서는 <전륜왕상수행경>을 통해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을 관찰하고 법으로써 우두머리로 삼고 바른 법을 보호하라. 또 마땅히 법으로써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법으로써 보호해 살피라. 그리고 모든 관리 및 모든 백성, 사문, 바라문을 가르쳐 경계하라. 밑으로는 금수에 이르기까지 다 마땅히 보호해 보살피라 한다"고 설하셨다. 또 "세상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대살자니자 소살경>"고 말씀하셨다.

이번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정신에 입각한 부처님 말씀에 가슴깊이 새겨 아직도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진 곳에서 인권에 유린돼 신을 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들 각자 스스로도 인권을 지켜 나가는 것은 물론, 모두 함께 인간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갓가지 중생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삼세에 평등하며 시방에 통달함을 다함이 없는 행"이라고 하며, 세상에 으뜸가는 바라밀다는 "존증행"이라고 하나니라. <능엄경> 김주일 기자

# 복제인간 현실로... "생명윤리법 제정하자"

## 불자 세상보기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이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또 일부는 뒤로 가야 한다고 소리친다. 선장 역시 나침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배는 그만 큰 암초를 만나고 말았다.

지금 배아복제에 관한 생명윤리 논쟁은 바로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 1997년 복제양 돌리자 탄생된 이후 인간복제를 규제하지는 목소리와 질병 치료를 위해 배아복제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어드밴스드셀테크놀로지(ACST)사의 세계 최초 배아복제 성공은

그야말로 생명윤리에 있어서 하나의 암초와 같다. 왜냐하면 복제된 배아는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면 언제든 한 인간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복제인간은 공상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엄연한 현실이다.

과학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는 분명 혁명이지만, 생명윤리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폭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 결합에 의한 인간 탄생이란 생식의 비밀은 이제 신화 속으로 사라지고, 한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유전자와 동일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인간 출생의 신비가 절대자의 손에서 과학자, 그것도 유전학

## 유전과학 연구성과 투명-윤리성 '과제' 법률적 장치 필요

자의 손으로 옮겨왔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간은 신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만물의 영장이 된 셈이다. 만물의 영장이, 특히 생명공학자의 손이 이기십의 노예가 되어 더러운 손으로 전락할 때 인류 운명은 견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사실 배아가 인간이나, 배아복제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느냐 등과 같은 생명윤리 물음은 과학의 물음이 아니라 철학의 물음이고, 근본적으로 종교의



김상득 전북대 교수 윤리학과

물음이다. 과학은 경험과 이성에 의해 그 참 거짓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 종교는 초이성의 영역으로 그렇지 못하다. 초이성의 영역이기에 생명윤리의 나침반은 없다. 아니 서로 다른 나침반을 갖고 자기 입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배아복제에 관한 한 어느 입장이 참이라고 논리적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망망대해에 표류하고만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불어 암초를 만나듯이, 우리 역시 생명공학에 자본이란 바람이 불어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아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 자체 역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법률이나 제도가 없다는 말은 과학자 개인의 윤리에 따라 배아복제를 해도 좋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그

래서 실제로 이미 ACT사에서 배아를 복제하지 않았는가? 서로 다른 종교, 철학,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 원래 법률의 본질은 한 사회의 제도나 법률의 내용이 어떠한가의 물음이 아니라, 그 제도나 법률을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하였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생명윤리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칭> 생명윤리기본법을 건설적으로 입법화하고, 또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IRB)를 제도화하여 과학적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계사가 11월 28일 설법전에서 역사와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조계사 포럼' 발족식을 갖고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 열린마당

### “서울, 생태-역사 숨쉬는 도시로”

유상우 <녹색연합 녹색도시위원회장>



최근 몇 년간 서울을 생태도시, 역사도시로 만들자는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과 인왕산, 관악산 등과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천, 청계천, 홍제천 등은 서울의 중요한 자연환경이고, 궁궐과 사대문 내의 인사동과 황학동 등은 서울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것들은 자본의 논리에 따른 무차별적인 개발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제 이것들을 보존하고 되살리기 위해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들은 인식전환과 상호연대를 구축해 서울 살리기와 맞선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태도시, 역사도시를 건설한다는 인식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서울의 역사축과 생태축을 병행한 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적 건물과 문화유산 보존에 나서야 하며, 사대문과 사대문 권역의 완전복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이 입안돼야 할 것이다.

생태도시, 역사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취해질 것이다. 첫째는 서울을 역사적, 문화적인 도시로 바꾸기 위해 지역의 역사유물을 재현, 보호하고 역사유물과 부조화한 것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둘째는 역사적 분위기와 문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토속적 음식, 복고적 거리, 전통적 색채, 고전적 디자인 등을 되살리는 노력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조계사의 역사와 문화환경은 서울 역사 문화의 한 축인 만큼 이를 가꾸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가꾸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시민운동 차원에서 조계사 가꾸기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 함께 하는 조계사 만들기 방향과 과제'를, 조계사 김남수 기획재장이 전통문화와 신행이 함께 하는 열린 조계사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제문을 요약했다.

## 조계사 포럼 '역사와 문화 보전'

### “조계사는 전통문화공간 역할”

김남수 <조계사 기획재장>



조계사는 한국 근대불교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이후 서울 도심에서 조계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사는 경복궁-조계사-인사동-북촌-경향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의 허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조계사는 기존의 전통문화공간으로서 사찰이란 역할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공간으로서 사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 조계사와 조계사 주변은 새롭게 정비될 것이다. 도심지 사찰이란 환경에 맞추어 조계사의 가람배치는 일주문-천왕문-불이문-불탑-금당의 대규모 형식이 아니라 사방문(四方門)의 소규모 형식을 갖출 것이다. 이는 주변과의 경계를 최소화해 전통문화와 녹지의 신앙공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조계사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 이전 우정총국 일대에 600평 규모의 우정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계사는 이미 우정공원 조성에 150평 정도의 토지를 무상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2002년 상반기 경 조계사의 일주문이 건립되면 우정총국 건물과 조계사 일주문은 우정국로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이 될 것이다.

조계사의 내부 공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조계사가 4200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전통문화대량의 자락을 갖추기에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대웅전 앞마당에 대한 연차적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기관, 교육공간, 교육공간, 승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재배치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 불자의 생각

### 불교와 정치권의 관계

각 정당 대선 후보 주자들이 불심을 잡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면서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의 '지금의 논쟁 중' 코너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밀접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호 보완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네티즌의 견해를 간단히 요약했다.

▲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불교를 외호하는 이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불법을 지키는 이들은 바로 호법성신 대중들이다. 정치인들이나 재력가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불교계는 정치인, 군인, 공무원들에게 위탁해 불법을 지키려는 '잘못된 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이제라도 불교계는 불법을 삼보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이 호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안락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허옥신)


▲ 불교가 현실 정치에 지나치게 침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와 정치가 가까워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종교일 뿐이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와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연이어 치러진다. 이때 매일수백 불교계는 초연히 대처해야 한다. 불교계 지도층은 행보 하나 하나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은 정치인들과의 만남은 물론 종단의 모든 활동도 주목하고 있다. (우설거사)

▲ 불교계 지도층이 정치권과 가깝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현대인은 정치적이란 말이 있다.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다. 부처님의 삶 또한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부처님이 출가 후 곧장 마가다국으로 갔다. 당시 마가다국은 부처님의 고향 석가국을 간접 통치하던 코살라국과 대등한 힘을 가진 나라였다. 그 곳에서 부처님은 마가다국왕으로부터 커다란 신임을 얻고, 교세를 떨친 뒤 코살라국을 찾았다. 이는 부처님이 나라간의 힘의 역학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풀이되며, 종교와 정치의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범우)

## 목초액수액시트

“발바닥에 붙여 몸속 독을 빼는 배독요법” 일본 화제의 상품!!

효과 없을 시 환불!



▶ 발과 불편한 족, 어깨, 머리, 팔, 무릎(膝)부위에 사용 권해하게 합니다.

▶ 장과나면 몸속 노폐물이 누렇게 변한 것을 직접 확인

▶ 발에 붙여서 상쾌하고 쾌적하게 하여 주는 건강상품

▶ 일본 히트 상품/국내 인기 상품

인터넷 : www.gaja.tv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 선물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피로하신 분, 종일 서서 일하는 분 (매장근무), 산후조리, 운동 선수/항상 피곤한 분, 각종 사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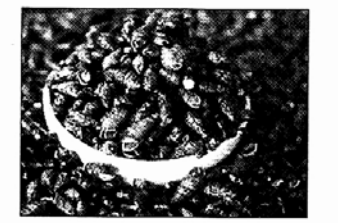
가자목초 \*모집\*  
 (02) 5454-010 \*데리점 취급점  
 농협 063-02-124288 이수일 \*영업시간 딜러

##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지요?

토종 울담과 비밀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 1kg을 구운 다슬기 껍데기를 죽이고 꿀과 함께 끓여 내어 깨끗이 씻고 끓여냅니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수액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달입니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도 이하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원거 97리니를 달인 뒤유에게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교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생약사)

■ 용내수 없는 것이 있다!  
 수인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6-4422